

다산포럼



이남주 성공회대 인문융합자율학부 교수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 '아세안+3' 회의 참석 등이 진행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아세안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지만, 타이완 관련 보도는 많지 않았다.

청춘 특특



정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2년

과거 베이비붐이라며 산아를 제한하던 정책들은 불과 몇 십 년 사이에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책이 됐다. 이웃 나라인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이며 우리나라 또한 밀집되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기고



구문정 광주청년센터장

'광주청년주간'이 어느새 열살이 되었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기념한 '세계청년축제'를 시작으로 해마다 개최해 2024년 광주청년주간이 올해로 10회를 맞았으니 사람으로 치면 어느덧 열살이 된 셈이다.

남중국해의 긴장고조와 한반도 평화

필리핀은 1999년 런아이자오 해변에 합정을 고의로 좌초시키는 방식으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자 했는데, 합정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계속 해변에 정착하기 어려워지고 있었다.

치되어 있다. 이에 중국은 9월 25일 1980년 이후 처음으로 태평양 지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진행했다.

社說

한강 노벨상 계기로 문학고장 위상 다져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감동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 등이 이를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의 일인 양 기뻐하며 축하하고, 소설 얘기를 나누고 있다. 광주지역에는 이미 북극청과 전일빌딩 등 건물 외벽에 초대형 노벨상 수상 축하 현수막이 내걸린 상태이다.

지역 여건 고려한 전남형 이민정책 시급하다

전남지역 내 외국인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여건과 산업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이민정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사를 바탕으로 중장기 산업 수요와 특성에 맞는 외국인력을 유치·육성하고 지역에 정착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無等鼓

"그 아이의 작품에는 나의 세대로서의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감각이 있었어요." 지난 2021년 여름, 등단 55주년을 맞은 한승원 작가와 장흥 안연명 '달깁는 집'에서 인터뷰를 했다.

우에도 문학을 삶 앞에 두지 않겠다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반짝이는 석영 같은 이 페이지들 사이를 서성이고 미끄러지며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승어부(勝於父)

이러한 작가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딸에게 어떻게 비취졌을까. 한강 작가는 같은 책 발문에서 이렇게 토로한다. "고백하자면 어린 시절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었다. 어떤 경

한국 작가 최초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점투구(泥田黴狗)하는 여야간 경쟁에 시달리는 요즘, 시민들에게 이보다 청량한 뉴스가 있을 수 없다.

'너는 늙어봤나, 나는 젊어봤나'

리 사회가 노인 혐오에 있어 얼마나 무딘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딸피'라는 단어로 노인을 지칭하기도 한다. 딸피란 처음 생겨난 단어가 아닌 그 의미가 퇴색된 단어도. 본래 게임 중 HP가 거의 없는 상황을 이르는 말이지만, 삼살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노인을 비하적으로 이르는 말이 됐다.

은 시간의 밀도를 가졌다. 대학을 졸업할 때 쯤 취직을 고민했을 것이고,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끊임없이 고민했을 것이다. 그 나이에 하는 고민이란 비슷하기 마련이니 말이다.

올해 10살 된 '광주청년주간' 어떻게 해야할까

획기적인 방식이자 우리 광주이기에 가능한 방식이자 자부심이기도 했다. 그런데 올해 2024년 광주청년주간은 청년총감독이 선정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기들이 있지만 필자는 적어도 광주청년주간이 열심시사는 청년들에게 있어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내가 있어서 세상이 굴러가고 있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場)'이 되어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의 장(場)'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汝松 | 편집인 崔宰豪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勳堯.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자국 (주국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